

# 불교 지향점 열반... 업사상은 방편

##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윤 희 ④

윤희의 문체는 동시에 개인의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의 문제와 연결된다. <순수의 길(Visuddhimagga)>이란 책에 이런 말이 있다. "난 어디에서도 누구를 위한 무엇이 되어 본 일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한 무엇이 된 적이 없다." 석조와 동시대인이었던 헤라클리토스도 비슷한 의미의 이런 말을 했다. "어느 누구도 동일한 강물에 몸을 두면 적실 수 없다." 또 플라투르키는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 안에서 죽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 속에서 죽는다"고 말했다. <순수의 길>에 이런 말도 나온다. "미래에 살 인간은 과거에서 살지 않았고 현재 살지도 않는다. 현재 사는 사람은 과거에 살지 않았고, 미래에 살지도 않을 것이다." 헤라클리토스가 말한 인간의 무상성(無常性)을 피타고라스 학파의 에피쿠르 무스는 그의 희곡에서 이렇게 풍자했다.

이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초저녁의 불꽃과 밤중의 불꽃이 각각 다른 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불꽃은 똑같은 등불에서 밤새도록 탈 것입니다." 대왕이며, 인간이나 사물의 연속은 꼭 이와 같이 지속됩니다. 생겨나는 것(生)과 없어지는 것(滅)은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존재는 동일하지도 않고 상이(相異)하지도 않으면서, 최종 단계의 의식으로 포섭되는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두 현자(賢者)는 여러 날에 걸쳐 대화를 이어나갔으며, 마침내 그리스의 왕은 불교에 귀의하였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사후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여섯가지라고 말한다. 이것은 육도윤회(六道輪廻)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다.

- 1) 천계도(天界道), 인도사회에서 상식화되어 있던 신화의 영향을 받아 대개



▷ 불교의 지향점은 정각을 통한 열반이다. 열반신도는 이 세계에 다가가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방편인 선업·공덕쌓기를 강조하는 인도의 윤회·업사상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육도윤회 중 아귀의 환부문을 묘사한 해인사 감로탱.

안원영 (서울대 교수·교양학) (상)



해방 이듬해 봄, 내 나이 열살 때인 어느 날, 할머니와 어머니가 무엇인가 부지런히 준비를 하신다. 내일 새벽에는 '네 부처님' 가는 날이다. 할머니 명으로 싹뿔연 새벽 어머니와 나, 쌀가마니를 진 일꾼 셋이서 집을 나섰다. 집에서 월악산까지는 백리길. 재넘고 계곡 건너, 한없이 한없이 가다 보니 알이 툭 트인 제비집같은 덕주사가 나타났다. 법당에서 스님과 절을 하고 또 한다. 처음 보는 절의 모든 것이 신기하다. 대웅전의 기둥은 왜 그리 굵은지, 절의 모든 것이 웅장하기만 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사이 눈이 내려 사방이 온통 흰 눈이다. 그 눈을 밟고 하산하여 집에 돌아오니 동네는 화창한 봄날이다. 어제는 눈이 그렇게 쌓인 곳에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살구꽃이 핀 곳에 있다... 이러한 경험이 하늘과 땅처럼 월악산 덕주사와 고함집이 대비되어 덕주사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내 뇌리에 깊이 남아 있다.

그러나 아! 덕주사여, 덕주사는 6·25 때 완전히 타 버렸다. 덕주사는 내 마음속에만 남고 재가 돼 버린 것이다. 그 후 45년만 지난 91년, 아내와 함께 덕주사 옛터에 둘러 마

자를 쓰고 말았다. 그 뒤부터 나는 애석하고 부끄럽게도 무종교자가 되고만 것인데 해인사 하계수련회에 참가하고 수계까지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기쁜한지!

1973년, 당시의 허허벌판이던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왔다. 큰 장미가 지면 지금의 무역회관에서부터 선릉 전철역까지 물이 차고 낚싯대를 든 낚시꾼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단 시골이다. 집 뒤에 있는 언덕마루에 올라 서면 건너편 숲속에 봉은사가 보였다. 다음해 초파일에 아내와 함께 등을 달았고 그 후 시간만 있으면 봉은사를 찾았다.

부처님 오신날에는 봉은사 앞에서 장사꾼들이 회심곡 테이프를 팔곤 했다. 나는 월봉 스님의 회심곡 테이프를 여러개 사서 틀었는데 그 노래가 애절한 것이다. 내내 동행하는 사람은 젊은 늙은, 종교가 있던 누구나 회심곡을

## 수계이후 "내 종교 찾았다" 감동 눈물 거사불교대학 다니며 정진... 회심곡 용어 정리도

애물떼 참배를 드리며 어린 날을 회상해 보았다.

대학원을 마치고 군에 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아버님은 임종하시기 직전 가톨릭으로 귀의하셨었다. 아버님의 영향인지 우리 2남3녀 형제자매 중 나를 제외한 네 사람이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세상사람이 다 가톨릭을 믿어도 동생은 안되네. 할머니가 동생을 위해 공양미를 이시고 덕주사에 가실 때 땅에도 안 내려 놓으시고 계속 머리맡에 이고 그 먼 길을 다니신걸 내가 봤어. 그 공덕으로라도 동생은 부처님을 믿어야 하네" 간곡히 당부하셨다.

해인사는 내가 수계받은 절이다. 지난 91년 8월 3일 종진 큰스님으로부터 수계받고 '월타(月陀)'라는 법명으로 수계증을 받으니 눈물이 나왔다. 비로소 내공교를 찾는 길에 눈물이 나온 것이다.

그때 까마득한 옛날 생각이 났다. 미국 유학을 떠날 때의 일이다. 여권을 받으려면 서너달이 걸리던 까다롭던 때였다. 신원진술서를 써야 하는데 종교도 조사한다. 마침 독실한 가톨릭신도인 교수와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는 "종교를 써서 꼬치꼬치 캐물게 되면 귀찮으니 그냥 놔두는 것이 편하다"면서 종교란을 비워두라는 것이다. "함 그렇구나. 누가 불교 교리라도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귀찮도 없구나" 나는 결국 종교란에 '무'



들어야 하는데 이제는 모두를 좋아한다. 회심곡의 내용을 알리고 대학원생들을 시켜 컴퓨터에 입력했는데 생소한 단어가 많다. 생소한 단어를 정리하여 회심곡 용어라 했다. 본은 열곡에 용어 열여섯 쪽이다. 회심곡 테이프를 달라는 사람에게는 이 본문과 용어집까지 주어, 읽으면서 들으라 권하고 있다.

90년 봄 봉은사 경내를 두루 살펴다 초심자반 개설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보았다. "제대로 알고 부처님을 모시자" 이른바 발심이 생겼다. 그러나 금방 등록은 못하고 시간이 흐르듯 해 연구실에서 다급하게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등록을 부탁했다.

"입학식이 끝나고 강의가 시작되어 하루가 뜻밖에도 열심히 나오네요." 아내가 전해왔다. 첫날은 결석한 셈이지만 그후로 결석은 없었다. 열심히 다녀 당시 주지 대운 스님께 수료증도 받았다. 93년 봄부터는 거사불교대학에 다녔다. 졸업과 더불어 거사립 '부처님 섬기는 모임'을 구성하고 참여하였다. 지도법사인 승원스님께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초발심자경문>과 <선기교감>을 배웠는데, 이 경전회화는 참으로 지도법사 스님의 열과 성으로 이루어져 회원 모두 경전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부터 가다듬어 왔다. 나는 차츰 몸이 무거워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법회에 빠지게 되었으니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개인은 영속하지 않지만 윤회하는 주체 일정

친구에게 돈을 빌려온 사람이 어느날 친구를 만나자, 인간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때 돈을 빌린 그 사람이 아니라고 우겼다. 친구는 그 변명을 받아들이고 대신 저녁식사에 그를 초대했다. 그가 만찬장에 도착했을 때, 하인들이 그를 도로 내쫓았다. 친구는 이미 그를 초대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가원전 2세기경 서북인도를 지배한 그리스왕 메난드로스(인도명 미란다)와 불교 경전에 정통한 학승 나가세나(那舍) 사이에 오고 간 대론서(미란다 왕하(米蘭陀 王問答))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 개인은 영속하지 않지만 윤회하는 주체는 일정하다는 것이다. 왕이 묻는다. "윤회가 사실이라면, 다시 태어난 자와 죽어 없어진 자는 동일합니까, 혹은 다릅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대답한다.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릴 때의 그대와 지금의 그대는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릴 적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만일 그대가 그 어린애가 아니라면 그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또 선생도 없었다는 것이 됩니까. 죄를 지은 자와 그 죄로 손발이 잘린 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여기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고 합시다. 그 등불은 밤새도록 탈 것입니다. 대왕이여, 초저녁에 타는 불꽃과 밤중에 타는 불꽃

"윤회가 사실이라면 다시 태어난 자와 죽어 없어진 자는 동일합니까?"  
"존재는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면서 최종단계 의식으로 포섭되는 것입니다"

33천(天)이 있다고 한다. 살아 있을 때의 공덕에 의해 사후에 좋은 세계에 태어난다는 민간신앙적 요소의 영향을 받은 생천사상(生天思想)은 천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불교문학에서는 천계에 대한 묘사가 자주 등장한다.

2) 인간도(人間道),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 그 어려움을 비유하기를, 심해(深海)에 사는 거북이 백년에 한번 수면위로 고개를 내미는데 망망대해에 떠있는 나무조각과 우연히 머리를 부딪칠 확률이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비유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기회에 얼마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운다.

3) 아수라도(阿修羅道), 아수라는 데바(神)의 적으로서 그리스 신화의 타이탄이 나 스키타네이아 신화의 거인(巨人)과 비슷하다. 전설에 의하면 아수라들은 브라만신의 서해부(사타구니)에서 태어나 평일에 그들의 왕국을 세우고 살고 있다고 한다. 아수라와 비슷한 존재로는

나가(naga, 龍神 혹은 龍神)가 있는데, 나가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뱀으로서 지하공전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4) 축생도(畜生道), 동물에는 네가지 종(種)이 있다고 한다. 첫째 다리가 없는 것, 둘째 다리가 두개인 것, 셋째 다리가 네개인 것, 넷째 다리가 많은 것으로 나뉜다. 붓다의 윤회정생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자타카(本生譚)에는 여러 동물의 몸으로 태어났던 붓다의 전생(前身)이 이야기 등장한다.

5) 아귀도(餓鬼道), 아귀의 원말은 프레타(Preta)인데, 이는 '가버린 사람(죽은 사람)'이란 뜻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버림받은 영혼을 가리킨다. 아귀의 배는 산만큼이나 부풀어 있지만, 입은 바늘귀처럼 작아서 항상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 더럽고 괴물이 상잡해 있으며 겉거나, 노랑거나 혹은 푸른 색을 띠고 있다. 그들은 인광(靈光)을 먹기도 하고 자기 살을 뜯어 먹기

도 한다. 대개 공동묘지에서 배회하며 살고 있다.

6) 지옥도(地獄道), 지옥은 대개 지하에 있지만, 바위 속이나 큰 집안에 만들어 지기도 한다. 지옥의 중앙에는 열라대왕이 있는데, 그는 죄인에게 신(神)이 보낸 첫번째 전령(아귀인)과 두번째 전령(노인), 세번째 전령(환자)과 네번째 전령(죄수) 그리고 다섯번째 전령(사체)을 보냈으나 묻는다. 죄인은 그 전령들을 보았지만, 그들이 상징이고 경고였다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열라대왕은 죄인을 열지옥(熱地獄)에 가둔다. 그곳은 네벽과 상하가 철관으로 둘러싸여 있고 네개의 문이 있는데 지면의 철관은 뜨겁게 타고 있고 있다고 한다. 수백년이 지나야 겨우 한쪽 문이 깨끗 열리는데, 그곳을 나서면 분노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수백년 뒤에는 개(犬)의 지옥으로 옮겨진다.

불교의 궁극적 지향점은 정각(正覺)을 통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신도는 이 세계에 다가가기 어렵다. 그래서 불교는 차선(次善)의 방편으로 선업(善業)과 공덕쌓기를 강조하는 인도 민간신앙의 윤회와 업사상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편역 : 김홍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 해광사 대웅전 봉불식 및 점안식

해광사 대웅전은 2년전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사부대중의 단합된 원력에 힘입어 장엄한 모습으로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대웅전에 새로이 불·보살님을 조성하여 봉불식 및 점안식을 봉행하고, 이에 동참한 분들의 수승한 공덕을 불전에 고하고자 하오니 신심있는 청신사 청신사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40년 5월 9일 (음 3월 22일) 오전 10시  
 ■ 증명법사 : 오고산 큰스님  
 ■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473-1  
 ■ 전 화 : (051)721-3167, 722-2570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해광사 주지 합장**

### 중국 명문 한의대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

■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의학, 침, 기공에 관심 있으신 분

■ 기 간 : 8박 9일

■ 주요연수내용 : 중풍, 당뇨병, 좌골신경통, 침치료, 지압치료법, 기공 등

■ 연 수 후 : 박사과정 연수수료증 수여 (침구,기공)

■ 인 원 : 15명 이내

■ 출 발 일 : 1996년 6월 4일 (화요일)

■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 문 의 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 전화 (02) 511-2026 · 2027  
 511-2028 · 1080  
 · 팩스 (02) 511-1080

### STARKEY Labs, Inc 보청기

미국 STREKEY사와 인체공학 연구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발명된 UV BIO특수공법(방음특히 총청 제 95-20591호)으로 제작된 보청기로서 키네틱도산 청가 (S-HELL/표피)로 전강에너지인 원리의 선이 방사되므로 청각 및 귀의 건강에 도움이 되며 내장된 인공지능 컴퓨터 회로에 의해 더욱 깨끗한 음질을 제공하는 최첨단 미래형 보청기입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1.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국산 조립품의 1/2정도)
2. 신장성 난청 및 귀울림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잡음을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4. 일레르기와 이물감을 최대한 감소 시켰습니다.
5.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6. 밧데리 소모량이 적어 경제 적

▶ 국산 조립품이 아닌 수입 완제품만 취급합니다.  
 ▶ 잘못지 않을시 언제라도 교환 제작해드립니다.  
 ▶ 출장 주문제작 판매도 해드립니다.  
 ▶ 신용카드 및 정기할부 판매합니다.  
 ▶ 국제적 상품의 상표를 꼭 확인 하십시오.

세계 최고의 명품만 취급하는 한미보청기  
 (스님 및 불교 신자님께서는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수입품 전문 회사 **한미보청기**  
 상담전화 (051) 803-9009, 817-9118/9 (야) 516-3725  
 (서면로터리 제일은행빌딩, 주치는 바로 옆 평화은행)

### 高級 普珒茶 (고급 보이차)

중국 운남성 서쌍관남 맹해 차정 산품 고급 보이차를 중국 차 진출구 총공사와 한국 독점판매 계약!

보이차는 중국 운남성 보이현의 서쌍관남(西雙版納) 맹해(孟海) 차정(茶廳)에서 생산되는 방호차로서 기간이 오래되면 질수록 차의 향취가 더욱더 깊어지는 고급차입니다.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는 물레스테를 제거 및 항암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특히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는 대회 공식차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정직 수입된 본 제품(200g)을 스님들과 차를 이용하시는 불자님들께 저렴하게 공급할까 합니다.

구입내용  
 \* 보이차 200g1박스(10박스 이상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직접 택배해 드립니다)  
 \* 구입처  
 부산 (051) 463-7949 대구 (053) 471-7956  
 (053) 958-5028  
 서울 (02) 529-2633 양산 (0523) 387-9902

중국화평 국제여유공사 부산사무소